광주 정권교체 카드 2장 들고 고민

5월 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대선주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5·18 민주묘지는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주자들의 호남 방문시 필수코스다. /광주일보=최현배기자

광주

야당 후보 선택 '꽃놀이패'
'文 대세론' 위력 지속될까
'安 대안론' 상승 추이 촉각
"호남에 애정있는 사람 투표"

"누가 되든 정권교체는 되야제.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1명만 잘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여?"

'5·9 장미대선'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놓고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민심이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있다.

갑작스런 조기 대선 정국에서 호남 민심은 상당수 '문재인 대세론'에 빠져있었지만 대선 한 달을 앞둔 호남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文 대세론'과 '安 대안론' 사이에서 막판 고민이 크다.

호남권 당내 경선에서 6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두 후보에 대한 호남의 밑바닥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주말과 휴일인 8~9일 야권의 광주지역 전통시장과 금남로, 신도심인 상무지구, 대학가 등을 찾았다.

이틀 동안 무작위로 만난 지역민들에게서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상당히 여론이 높았던 '문재인 대세론'의 위력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60% 이상 호남지역 경선 득표 결과에도 군데군데 비토 정서는 남아 있었다.

반면,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함에 따라 안 후부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보다 높았다. 그러면서 선거 막판까지 두 후보에 대한 선택지를 미뤄놓겠다는 시민들이 상당수로 한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지난 7일 광주 대인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중인 김성현(61·가명)씨는 "문재인이 쉽게 되겠어? 처음에는 문재인 대세론이 너무 강해 어쩔수 없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문 후보 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주변에 상당했지만, 여전히 반문 정서가 상당하게 남아있던데"라고 말하자 옆 가게 주인이 불쑥 끼어들었다.

정수철(56·가명)씨는 "안철수가 되겠어요? 일시적인 바람이겄제. 이미 대세는 문재인쪽으로 기울어 불었당께"라면서 "국회의원 40명 밖에 없는 정당 후보가 어떻게 어려운 정국을 이끌겄소"라고 반박했다.

광주 서구 치평동 S커피 전문점에서 봉사단체 모임을 하고 있는 50대 주부 10여명이 대통령 선거를 이슈로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장모(50)씨는 "문재인, 안철수 둘 중에 무엇보다 호남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갖는 사람을 찍겠다"고 말했다. 조모(54)씨는 "안철수가 진짜로 달라졌던데, 연설하는 모습이나, TV토론회에서 거침없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제 상당히 믿음이 간다"고 밝혔다. 최모(60)씨는 "아직도 내 주변에는 반문 정서가 상당하고, 최근 안철수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명 중 7명은 안철수의 기대감과 대안론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3명은 그래도 준비되고 검증된 문재인 대세론이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두 후보의 '호남 챙기기'와 관련해선 의문 부호를 달았다. 이는 '호남 차별, 호남 소외론'이란 말이 다음 정부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남로에서 만난 대학생 김철호(24)씨는 "다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불안해한다. 40석 의석으로 향후 정국을 어떻게 이끌겠는가, 보수 정당과 연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전남대에서 만난 최모(여·21)씨는 "집에서도 할아버지, 아버지 의견이 서로 다르고, 막판까지 지켜보시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우려도 나온다. 주부 최모(38)씨는 "두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상대방만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TV토론회 등을 통해 국가와 호남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 검증 등을 제대로 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고른 지지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바랬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민주당에게는 뼈아픈 회초리를, 국민의당에 새로운 기회를 줬던 호남민심이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광주일보 최권일·이종행기자

대전 "누구 찍을지 아직 몰라유~"

제19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6일 대선주자와 지지자들이 대전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일보=신호철 기자

대전

반기문 불출마·안희정 탈락
아쉬움 속 민심도 양분
"진보·보수 대결보다
인물 중심 투표" 관망 중

"정말 안희정 지사가 후보로 나선다면 찍으려고 했어요."

지난 8일 대전 동구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 말고 지난 민주당 경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이어가던 40대 여성 이모 씨는 안 지사에 대한 안타까움부터 내비쳤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이씨는 최근 주변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충청권의 안 지사 지지층 일부가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이 상가에 물건을 사러 온 박은자(56·여) 씨는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누가 되든 지난 정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엔 절대 보수 후보는 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만난 최재훈(27) 씨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5일장이 열린 지난 7일 세종시 금남면 대평전통시장에서 만난 시장 사람들은 반기문을 선호했는데 중도하차 해 버렸고,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선 "아직 더 커야 한다"는 말로 아쉬움을 대신했다. .

박육균 대평시장 상인회장은 "찍을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안철수가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장을 보러 온 김길석(58·여·세종시 한솔동) 씨는 "주변에 문재인을 찍는다는 사람은 없어유. 안철수는 첨에는 생각도 안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시장에서 양품점을 하고 있는 서금예(60) 씨는 "문재인은 화끈한 것 같고, 안철수는 진실한 것 같다"는 말로 대신했다. 옆에 있던 상인회장은 "그 말이 안철수를 찍겠다는 말이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청 공무원(40)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재인밖에 없다. 안철수는 어딘가 우유부단해 보이고 제대로 검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진시 당진1동에 사는 차상길(72·농민) 씨는 "안희정이든 문재인이든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돼야지. 안철수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일주(43·회사원) 씨는 "진보·보수를 떠나 안정감 있는 후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에서 김무성 전 대표를 지지했다는 인행순(63·건설업) 씨는 "김무성 전 대표가 문재인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대결을 펼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인기가 하락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아직 누구를 찍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을 하는 최언규(60·논산시 양촌면) 씨는 "지난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은 이인제, 당은 국민의당을 지지했다"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대세론을 펴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어 흥미롭다"며 안철수 후보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용영(56·부여군 부여읍) 씨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접했지만 거기까지며 문 후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선거는 후보의 인물도 많이 따지지만 당세가 무엇보다 크게 좌우하는데 당세를 보더라도 문 후보가 월등히 앞서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라며 문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충북의 표심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상수(62·자영업·청주시 우암동) 씨는 "아직까지는 관망이여, 누가 좋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고 있어. 나도 누굴 찍어야 할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여"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에 사는 김혜란(39) 씨는 "나라를 망쳐 놓은 사람들에게 다시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 촛불의 민심"이라며 "적폐 청산의 적임자인 문재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대전일보 김진로·인상준·차진영 기자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 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접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수완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공고 2017 - 025호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북구 고시 제2017-51호(2017.04.04.)』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조합정관』에 의거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 할 것이오니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와의 권리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북구 고시 제2017-51호 참조)
①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86-4번지 3층/ - 성명 :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②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③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2017년 04월 04일
④ 건축계획 : 공동주택 1,556세대(지하2층~25층, 17개동)
⑤ 건축연면적 및 용적률 : 242,551.62㎡/223.94%
2. 정비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 면적
①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64-1번지 일원 / 132,289.10㎡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① 분양신청 기간 : 2017년 04월 17일(월요일) ~ 2017년 05월 27일(토요일)
(31일간, 공휴일 정상근무 / 근무시간 : 오전 10 : 00 ~ 오후 18 : 00)
② 분양신청 장소 : 조합사무실(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86-4번지 3층 / Tel : 062-521-5557)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① 공동주택/ ※ 상기 타입은 전용면적 기준임 (단위 : ㎡)

구 분	타 입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조합원 분양 / 일반 분양	39B평	21	39.99	15.92	55.91	39.09	95.00
	59평	267	59.98	24.03	84.01	58.63	142.64
	74평	42	74.99	29.57	104.56	73.30	177.86
	84A평	519	84.92	25.97	110.89	51.40	162.29
	84B평	431	84.88	26.88	111.76	51.38	163.14
	109평	120	100.79	31.75	141.54	66.47	208.01
임대	39A평	138	39.99	15.87	55.86	39.09	94.95
	39B평	18	39.99	15.92	55.91	39.09	95.00
합 계		1,556	120,074.03	39,339.56	159,413.59	82,461.92	241,875.51

② 근린생활시설

구 분	층 수	지상 층(㎡)	비 고
근린생활시설 - ①(S-1)	지상 1층	391.71	
근린생활시설 - ②(S-2)	지상 1층	284.40	
합 계		676.11	

※ 상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내역은 사업시행인가고시 기준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분양신청 자격
* 분양신청 대상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25조 및 제27조, 조합정관 제9조에 따라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즉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
6. 분양신청 방법
① 조합에서 지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사무실에 제출 (별도 통지한 분양신청 안내자료 참조)
② 제출방법
1. 방문제출 : 조합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우편제출 : 분양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겉봉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합사무실에 발송
7. 토지 등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기타의 권리자는 상기 분양신청기간 내에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권리신고를 당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국공유지 점유자, 영업권 손실보상대상자 등은 필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조합정관 제44조에 의거 현금청산 및 분양신청 마감일 후 조합원자격이 상실 됨.
9. 철거 및 이주 예정일
* 이주 예정일은 조합정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별도 공고 및 통지 예정이며, 철거 예정일은 이주 완료 후

2017년 4월 10일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민 병 진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86-4번지 3층, 전화 : 062)521-5557, 팩스 : 062)511-1189】